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말까지 뉴욕 발전소에서 석탄을 제거하는 최종 규정 채택 발표

뉴욕, 국내 최초로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

주에서 모든 발전소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켜야 할 예정 - 채택 규정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40퍼센트 줄이는 목표 포함, 주지사의 국가 주도적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석탄 발전소를 금지함으로써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고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주도적 조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서 뉴욕주의 모든 발전소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 이산화탄소(CO2)의 새 배출 제한을 충족해야 하는 최종 규정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소 배출 규제에 접근하는 해당 규정으로 뉴욕주 발전소에서 2020년 말까지 석탄 사용을 중지하려는 주지사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계속해서 쓰러지는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를 무시하고 환경 보호책을 되돌리는 동안 뉴욕은 강력한 기후 조치로 국가를 주도하여 우리 지구와 지역사회를 지킬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최종 규정 채택으로, 더욱 깨끗한 청정 장기 에너지 해결책을 향한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뉴욕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해당 요건은 청정 에너지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정부는 기후 변화에 맞서며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깨끗하고 석탄 없는 환경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뉴욕은 절정기용 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석탄 규정과 함께 이러한 방안으로 절정기용 발전소에 새롭고 엄격한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공기 질을 개선하고 공공 건강을 보호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석탄을 없앤다는 주지사의 2016 시정방침 서약(2016 State of the State pledge)과 환경보존부(DEC)에 이를 시행할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한 [2018 시정방침\(2018 State of the State directive\)](#)을 이행하며 해당 규정으로 기존의 주요 발전 설비에 이산화탄소 요건율을 정립함으로써 주요 발전 설비(Electric Generating Facilities)에 적용하는 뉴욕주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CO2 Performance Standards)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0년까지 뉴욕주의 남은 석탄 발전소가 더 깨끗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폐쇄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직원과 지역사회가 미래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 기후 경력 계획(Clean Climate Careers initiative)을 통해 설비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석탄을 없애도록 전환하는 시설을 지원할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의 주체를 도울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5월 9일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었으며 2019년 6월 8일에 완전히 발효됩니다.

2월, 환경보존부(DEC)는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하며 가장 더운 날들에 가동되는 '절정기용'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더럽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탄소 오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고 2040년까지 청정 전기로 100% 전환할 것입니다. 해당 방안은 <http://www.dec.ny.gov/regulations/116131.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미국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계속해서 일상적 대기 오염의 위협과 증가하는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동안 뉴욕은 더욱 깨끗하고 푸른 미래로 향하는 방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오염이 심한 과거의 화석 연료에 의지하는 대신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미래 탄소 중립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규정은 기후 변화에 대한 진정한 조치를 나타냅니다. 뉴욕은 전기용 석탄 때기를 없앴으로써 국가를 주도하는 환경 옹호자로서 역사 속 우리의 자리를 굳히고, 모든 지역사회가 환경 지원금 및 기후 조치의 경제적 잠재성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동부(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 Cuomo 주지사님의 강한 입장에 찬사를 보냅니다. 2020년까지 뉴욕의 발전소에서 석탄을 없앴으로써 주정부는 청정 에너지원에 투자하고 청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요 변화 방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Alicia Barton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이 청정 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능력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기후 변화를 막고 커다란 경제 발전 기회를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목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시키고 2040년까지

뉴욕주에 탄소 없는 전력망을 만들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규정은 탄소 중립 경제로 향한 가속도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 시민과 환경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Todd Kaminsky 상원의원 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청정 에너지 및 대기를 위한 길을 닦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맞서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Seggos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 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탄은 산업 혁명을 진행한 연료지만 우리를 기후 변화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발전소가 엄격한 이산화탄소(CO2) 제한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규정 채택으로 뉴욕이 석탄을 없애고 청정 에너지 목표를 이루며 유해한 대기 오염을 줄이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

오늘 발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면서 청정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종합적인 어젠다의 일환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 2018 청정에너지 일자리 및 기후 어젠다(2018 Clean Energy Jobs and Climate Agenda)는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의 배출을 줄이는 절차를 진행하고 해상 풍력, 태양, 에너지 저장, 에너지 효율성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하며 청정에너지 기술을 향상하는 과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주 전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국가 주도적인 기후 변화 대책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Cuomo 주지사의 2019년 주지사 시정방침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발표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으로 2040년까지 뉴욕주 전력은 100% 탄소 없이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탄소 절감 목표로, 최근 캘리포니아가 채택한 탄소 절감 목표보다 5년 앞서 있습니다. 이번 신규 계획의 기초는 뉴욕의 성공적인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으로 2030년까지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량을 50%에서 70%로 올려야 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 **미국 기후 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주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초당적인 미국 기후 동맹(U. S. Climate Alliance)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은 현재 국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24명의 주지사를 포함하며 미국 국내 총생산(GDP)이 약 11조 달러에 해당하여 현재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 2016년 이후로 3억 달러 규모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이 보장되어 모든 카운티에서 부지를 보호하고 수질과 공기질을 개선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온실가스 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2014년 지역별 온실가스 계획(RGGI)의 탄소 배출 상한량을 45%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으며 동북부와 중서부 주들 간의 성공적인 총량 규제 거래제(successful cap and trade program)를 위하여 2020년과 2030년 사이의 상한량을 적어도 30% 감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적극적으로 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유치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개선하면서 깨끗하고 복구력을 갖춘 적정 가격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뉴욕주 전기의 50%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배출되어야 하며 203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70%로 크게 늘리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종합적이고 야심 찬 청정에너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전례 없는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뉴욕은 46건의 육상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부문에서 2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로 70억 달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최근 뉴욕은 대규모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로 약 150만 메가와트시 생산을 목표로 하는 세 번째 입찰 권유서를 발표했습니다.
- **청정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 청정 기술 혁신에 뛰어 들고 민간 투자를 동원하며 모든 뉴욕 주민에게 확장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5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 **뉴욕 그린 बैं크(NY Green Bank):**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린 बैं크(Green Bank)를 만든 2014년부터 뉴욕주 전역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서 공공 및 민간에 1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주지사는 국가적으로 확산하여 민간 부분 기금으로 최소 추가 10억 달러를 조성하기 위해 뉴욕 그린 बैं크(NY Green Bank)를 요청했습니다.
- **NY-Sun:** NY-Sun 태양 프로그램은 2011년 이후로 뉴욕주 전역에서 35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활용하고 약 12,000개 직업을 만들며 태양 에너지를 1,500%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2018년에 총 거주지 및 소규모 상업건물 태양광 발전 설치 분배에서 국내 2위가 되었습니다.
- **청정 기후 일자리 창출(Clean Climate Careers):** 노동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2020년까지 주 전역에서 청정에너지 신규 고급여 일자리 4만 개를 만들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연안의 해상 풍력(Offshore Wind):** 2018년 미국에서 가장 종합적인 해상 풍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으로 뉴욕의 120만 가구가 사용하기 충분한 2.4기가와트까지 생산한다는 전례 없는 계획이었으며 뉴욕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에 따라 2035년까지 9,000메가와트로 약 4배를 더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해상 풍력 약 800메가와트 이상 생산을 위한 초기 입찰에서 전례 없는 역사적 반응을 얻었으며 2019년 봄에 수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저장:** 2018년 주지사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에 나온 에너지 저장 목표는 2025년까지 1,500메가와트, 2030년까지 3,000메가와트를 저장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력망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억 8,000만 달러는 산업 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4억 달러 규모 투자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성:** 2018년 지구의 날(Earth Day 2018)에 2025년까지 180만 뉴욕 가구가 사용하는 양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야심 찬 새 에너지 효율성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